

“기업이 행복하게! 우리의 내일을 행복하게!”

2019년 2/4분기 전북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보고서

2019. 4.

목 차

I .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3
2. 조사대상 기간	3
3. 조사실시 기간	3
4. 조사대상	3
5. 조사방법	3
6. 조사항목	3
7. 집계방법	3
8.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방법	3
II . 2019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응답업체 분포	5
3. 항목별 경기전망	5
4. 업종별 경기전망	6
5. 지역별 경기전망	6
6. 올해 한국경제 전망	7
가.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	7
나. 투자여건 평가	7
다. 사업 투자계획 및 방향	8
7. 경제 현안 문제 해결	9
가. 진전을 이룬 경제 현안	9
나. 문제해결이 시급한 현안	9
다. 서비스 산업 문제해결을 위한 경제주체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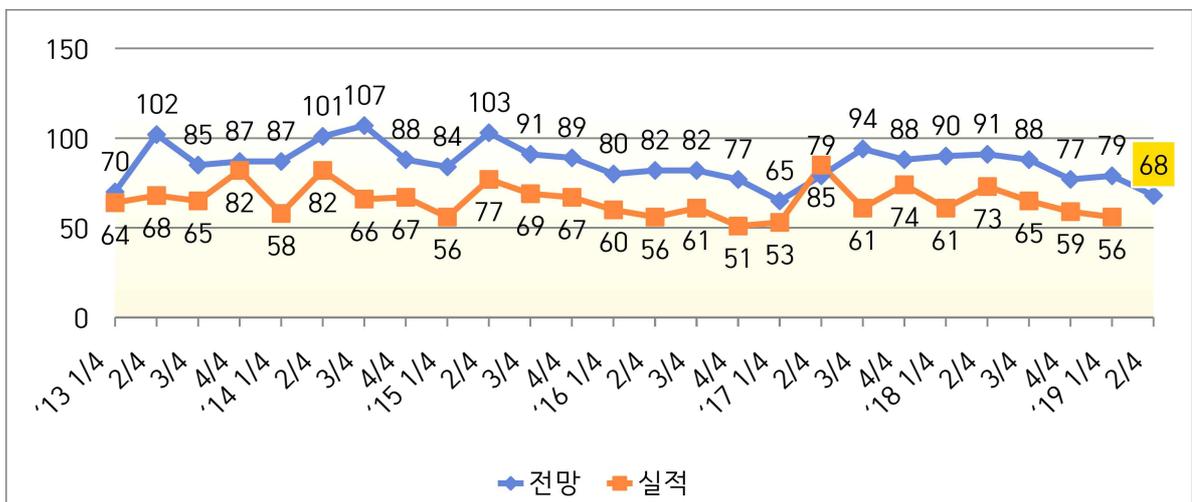
Ⅱ. 2019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1. 종합전망

체감경기 어려움 지속 예상 2/4분기 BSI '68'

- 지난해 증가세를 이어갔던 수출 실적이 올해 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전북 산업의 한 축인 자동차산업과 화학, 전자부품 등 전반적인 제조업 품목들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도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 4개 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공동으로 도내 120개 제조업체에서 회수된 조사표를 대상으로 분석한 「2019년 2/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가 '68'**로 집계됨
- 이와 같은 전망치는 2015년 2/4분기 BSI '103'을 기록한 이후 16분기 연속 BSI 기준치 '100'을 밑도는 전망치로 지역경기가 회복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2019년 1/4분기 실적지수는 '56')

【전라북도 제조업 BSI 추이】



【전라북도 제조업 BSI 추이】

(단위 : B.S.I, 전분기대비)

분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전망치	70	102	85	87	87	101	107	88	84	103	91	89	80	82	82	77	65	79	94	88	90	91	88	77	79	68
실적치	64	68	65	82	58	82	66	67	56	77	69	67	60	56	61	51	53	85	61	74	61	73	65	59	56	

2. 응답업체 분포

- 응답업체의 분포를 보면 2/4분기 경기가 전분기보다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14.2%(17개사)에 그친 반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46.7%(56개사)로 매우 높게 나타남

【응답업체 분포현황】

구분	2019년 1/4분기 전망	2019년 2/4분기 전망
호전	21.6%(24개)	14.2%(17개)
비슷	36.0%(40개)	39.2%(47개)
악화	42.3%(47개)	46.7%(56개)
계	100.0%(111개)	100.0%(120개)

※ ()는 응답업체 수

3. 항목별 경기전망

- 도내 기업들의 항목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금조달여건 등 수출과 내수 모든 항목이 기준치 ‘100’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2019년 2/4분기 항목별 BSI】

(단위 : BSI, 전분기대비전망)

구분	매출(내수)	매출(수출)	영업이익(내수)	영업이익(수출)	자금조달여건
BSI	67	78	72	74	73

4. 업종별 경기전망

- 업종별 전망은 금속기계(110) 업종이 기준치를 상회하면서 지난분기 대비 호전을 전망했으나, 이외 모든 업종은 전분기 대비 경기악화를 예상함
- 지난 분기 호전을 기대했던 화학(82) 업종과 전기전자(58) 업종도 다음 분기에는 기준치 100을 밑돌며 악화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라북도의 주력업종인 자동차(76) 업종이 지속적으로 기준치를 하회하고, 화학(82) 업종 또한 악화로 돌아서면서 지역 산업의 침체된 분위기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함

【 2019년 2/4분기 업종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전망)

구 분	음식료	섬유의복	종이나무	화 학	비금속광물	금속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기 타
BSI	92 (95)	70 (92)	67 (86)	82 (112)	45 (56)	110 (87)	58 (108)	76 (76)	62 (89)

※ ()는 지난 1/4분기 BSI 전망 수치

5. 지역별 경기전망

- 2019년 2/4분기 지역별 체감경기는 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 모두 BSI 기준치 '100'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군산(60) 지역이 도내 지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군산지역 경제의 심각성을 나타냄

【 2019년 2/4분기 지역 BS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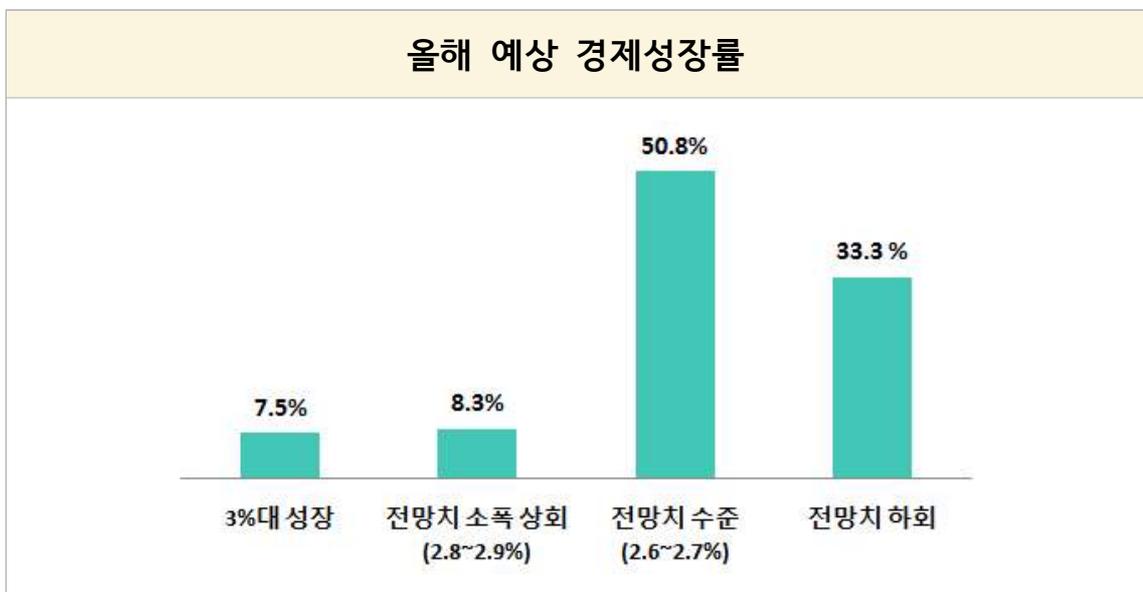
(단위 : BSI, 전분기대비전망)

항 목 \ 규 모	전 주	익 산	군 산	전북서남
체 감 경 기	72	65	60	67
매 출 (내 수)	89	70	65	74
매 출 (수 출)	81	76	75	75
영업이익(내수)	85	60	60	63
영업이익(수출)	83	61	77	64
지 금 사 정	77	70	60	74

6. 올해 한국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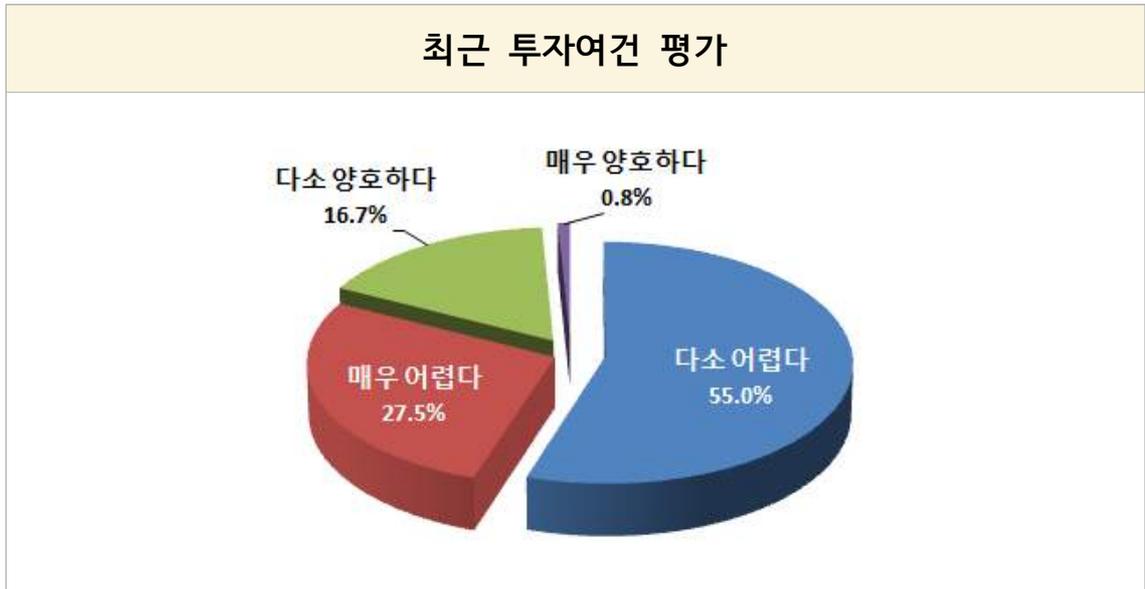
가.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

- 우리지역 기업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하여 ‘**전망치 수준(2.6~2.7%)의 성장을 예상한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망치를 하회할 것(33.3%)**’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남
- 한편,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소폭 상회할 것**’이라는 응답은 8.3%, ‘**3%대 성장을 예상한다**’는 응답은 7.5%로 조사됨



나. 투자여건 평가

- 최근 회사 투자여건에 대해서는 ‘**다소 어렵다(55.0%)**’라는 평가가 절반 이상의 응답률을 차지하고, ‘**매우 어렵다(27.5%)**’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지역 기업 대부분이 투자환경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반대로 ‘**다소 양호하다**’라는 의견은 16.7%, ‘**매우 양호하다**’는 의견은 0.8%로 미미한 응답률을 보임
- 한편, 투자여건이 어려운 이유로 응답 기업들은 국내 경기 침체, 내수 부진, 해외시장 악화, 불확실성 증대, 매출액 감소 등을 지적하였음



다. 사업 투자계획 및 방향

- 한편, 응답 기업의 80% 이상이 전반인 투자여건을 어렵다고 평가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2/4분기 투자계획에 대해 보수적인 사업계획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됨(보수적(80.8%) > 공격적(19.2%))
- 2/4분기 보수적인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들은 그 이유로 ‘경기 불확실성의 증대(50.8%)’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고용노동환경의 변화(23.3%)’와 ‘기존시장의 경쟁 과다(20.8%)’, ‘자금조달의 어려움(19.2%)’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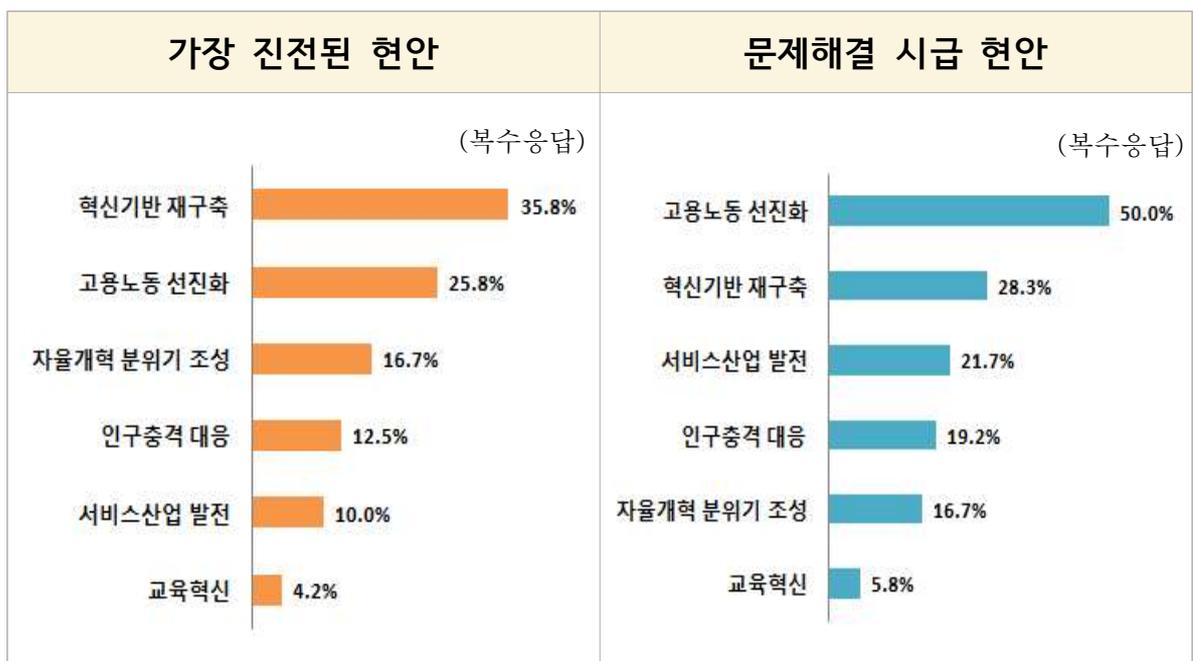
7. 경제 현안 문제 해결

가. 진전을 이룬 경제 현안

-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와 비교해 현재 비교적 진전을 이룬 경제 현안으로 도내 응답기업의 35.8%가 규제개혁, 스케일업, 4차 산업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된 ‘혁신기반 재구축’을 지목하였으며, 다음으로 정규직 과보호 완화, 고용안전망 확충 등과 관련된 ‘고용노동 선진화’가 25.8%로 높은 응답률을 차지함

나. 문제해결이 시급한 현안

-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문제해결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응답기업의 50.0%가 ‘고용노동 선진화’를 꼽으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뒤를 이어 ‘혁신기반을 재구축(28.3%)’, ‘서비스산업 발전(21.7%)’, ‘인구충격 대응(19.2%)’ 순으로 조사됨
- 도내 기업들은 정부가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 시급 인상 등 기업들이 감당할만한 수준으로써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다. 서비스산업 문제해결을 위한 경제주체

- 최근 서비스산업이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며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존 제조업 분야가 생산성 향상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 분야는 우리나라 경제산업 발전의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규제와 기득권 장벽으로 인해 많은 서비스 산업이 성장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경제주체로 ‘정부’를 지목한 기업이 응답 업체의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시민단체’ 28.8%, ‘국회’ 22.8%로 뒤를 이어 높은 응답률을 차지함

